

지역 매아리

정읍시, 읍·면·동 초도방문
건의사항 처리결과 발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관내 23개 읍·면·동 초도방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해왔다.

초도방문 시 접수한 건의사항은 총 108건으로 시는 8월에 사면별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담당부서는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건의자의 면담과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시에서는 1일,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그간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와 추진현황을 민원인(건의자)에게 안내토록 했다.

추진상황 별로 보면 전체 108건 중 완료 23건, 추진 중 46건, 금후추진 16건, 추진불가 19건, 보류·취하 등 4건이다. 이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85건으로 시에서는 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각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크고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거나 연도별 예산확보로 건의사항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조성욱 연구소장 부임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제4대 연구소장 조성욱(59) 연구소장이 부임했다. 고창군이 출연한 재단법인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지난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생물학연구정보센터, 고창군청,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소장 공모를 실시해, 블라인드 채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4대 연구소장에 조성욱 소장을 공개 채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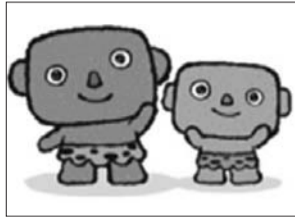
조성욱 선임 연구소장은 지난 1983년 5월에 무주군 농촌지도사를 시작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2018년 9월에 고창군농업기술센터(지방농촌지도관) 소장으로 퇴직하기까지 35년 10개월간 고창 농업 발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진흥원장 표창, 농림부장관 등 표창 등을 수상했다.

조성욱 선임 연구소장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지역농가(생산자), 식품관련업체, 유관기관 관계자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토대로 연구소 경영혁신과 지역 발전에 기여 하겠다"며 "복분자 등 지역 특화작물을 식품산업으로 발전시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헌신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서 웅비하는 천년전복'

전북도민체육대회 상징물 최종 '확정'



2019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고창군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의 상징물(포스터, 엠블럼, 슬로건)이 최종 확정됐다.

고창군은 지난달 24일 '대회 상징물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접수된 총 236점의 작품을 대상으로 포스터, 엠블럼, 슬로건 3개 부문 총 6점의 입상후보작을 선정하고, 25일부터 31일까지 표정 등과 관련된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상징물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포스터는 경기에 참가하는 각 종목 선수들의 열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함축 붓터치로 역동감 있게 표현했으며, 고인돌 유적지를 비롯

로 전라북도와 고창군의 화합, 참여, 감동, 상생 등을 상징하고 있다.

슬로건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웅비하는 천년전복'으로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강조하면서, 기운차고 용기 있게 날아오르는 전복의 이미지를 담았다.

한편, 마스코트는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전통과 문화의 도시'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살아 숨쉬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개발된 고창군 캐릭터인 '모로모로'를 활용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 상징물 확정을 시작으로 2019년 개최되는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의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200만 전북도민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생명연장·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상생협력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의 주최로 개최됐다.

전국 지자체의 우수시책 발굴과 행정·재정 지원으로 지자체 간 상생협력과 갈등관리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였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각 시·도에서 추천한 37개 지자체 사례 중 서면심사와 면접심사를 통과한 14개 지자체의 우수사례의 최종발표와 심사가 있었다.

심사결과 정읍시는 장려상에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시상했다.

정읍시는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2016년도에 지역복합생활 선도시책으로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유기적인 조직체계와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정읍아산병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에 따른 시설확충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민간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보조



했다.

또한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 마을이정과 노인관련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상황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 할 수 있는 기술 및 방법 등 생활 안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원, 의용소방대, 읍면사무소 등 지역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전문가를 양성하여왔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지역주민의 생명연장의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민·관·공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며, 오늘의 수상을 발판삼아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생명사랑 녹색마을' 실천 기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시행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1일 감곡면 3개마을 95가구에 음독으로 인한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감곡면 양오마을 경로당에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정읍시는 타 지역보다 지역사회 전체 자살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2017년 정읍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6.2명으로 전국 평균 24.3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음독(농약)으로 인한 자살 사망자수가 27.5%로 매우 높게 나타나 농약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시에서는 자살위험수단 통제체계 마련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달까지 감곡면 3개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95개와 폐농약용기수거함 3개를 설치 완료했다. 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은 지난 2월에 감곡면 오우리 양오, 진흥리 진교, 계룡리 관봉마을을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하고,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마을별 간담회 실시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행복누림안전마을사업을 병행 실시했다.

농약안전보관함은 음독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하기 위해 외관에 잠금장치가 부착되어있어 농약을 보관하고 깨낼 때마다 항상 잠금도록 되어있다. 음독자



살의 경우 총동적인 경우가 많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동안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시간과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해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지원으로 태인면 3개마을 95가구에 보급하였고, 보급 가구에 대하여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다.

한편, 문 소장은 "이번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해 마을 주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마을과 생명사랑 마을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총력'

전병순 부군수, 국회 방문 변산 휴(休)어드벤처 벨리 조성사업 등 강조

부안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 단계부터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병순 부안군 부군수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일 국회를 방문해 광복행보를 펼쳤다.

전병순 부군수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 민주당 김종희 의원과 전북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당 조배숙·정동영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부안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로 체험시설(130억원)과 변산 휴(休)어드벤처 벨리 조성사업(180억원), 조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15억원), 국립새만금 박물관 건립사업(346억원), 국도 30호선 청호 졸음쉼터 설치 사업(50억원) 등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국회 단계의 증액을 요청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지역 성장드라이브인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의 국회 단계 대응을 위해 위도지역 소형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의 8건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전북도 국가예산팀과 국회 동향을 공유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병순 부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2023년에 부안에서 개최는 세계캠핑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라며 "2019년 예산이 확정되는 다음달 2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해 지속적으로 예산 증액 및 삭감 방지를 위한 정책질의서를 제공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주부터 2019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심의의 위해 삼일위와 예결위의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